

05 2019
VOL.227

언론 사람



04 인터뷰 人+人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06 손거울
응답하라 1975

08 세상사는 法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 문제

12 이달의 시
지혜인의 감동적인 사랑론



수덕사의 봄밤

충남 가야산 줄기에 자리 잡은 수덕사(修德寺).
백제로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고찰로
이 절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은 없으리라.
경허와 만공 같은 전설적인 스님부터
시인 일엽스님, 고암 이응로 화백의 수덕여관 등
어느 한군데 지나칠 곳 없이 가람 곳곳에 추억을 지니고 있다.
산 너머 서해로 해가 숨어들 때
청련당 등불은 아련한 봄밤을 단아하고 애처롭게 밝힌다.
미망에 잠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그래서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고 간절하게 봄꽃을 찾아 비춘다.

글·사진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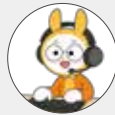
05

2019
VOL.227

- 02 CLOSE UP
수덕사의 봄밤
- 04 인터뷰 人+人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06 손거울
응답하라 1975
- 08 세상사는 法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 문제
- 10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2019년 밀레니얼 트렌드 예측
'마이싸이다'
- 12 이달의 시
지혜인의 감동적인 사랑론
- 14 언어의 중력
터지다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증인>
-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19년 5월 2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변시지 <점 하나>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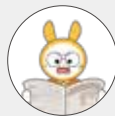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평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과 최근 발생한 불법 영상물 공유 사건 등은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구조적 문제이며, 공동체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공유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30년 가까이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을 만나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았다.

진행 남승균(홍보팀 팀장) 사진 및 정리 윤은자(홍보팀 에디터)

Q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1991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를 개설하시고, 창립 멤버로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1990년 여성학을 공부하던 동료들이 의기투합해 상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폭력상담소가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상담소를 개설하면서 여성학이라는 실천학문을 통해 사회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교육, 정부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삶의 한 가운데가 된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앞으로 잘못된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의 맥박이 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Q 오랜 기간 현장에서 성폭력 문제를 체감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을 느끼시나요?

A 전국에 170개 상담소가 있는데, 연간 18만 건의 성폭력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지만,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이 상담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구조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관련 사건의 기소율은 42%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고소를 해도 사건이 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담소에서 상담하신 분 중 25%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기도 하고요.

지난 3월 UN 여성지위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현재 세계 각국의 여성 각료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8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17%인데, 조사 대상국 중 121위로 더 낮습니다. 성 평등과 성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 현상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상담소를 처음 시작했던 28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는 성폭력이 친고죄였고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해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많았죠. 성폭력 특별법이 마련되는 등 법과 제도는 많이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이 쉽게 용인되는 분위기나 제도와 사회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좀 더 진전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Q 2018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폭행 또는 협박'을 성폭력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297조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A 지난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7가지 젠더 폭력과 관련한 권고를 내렸는데, 그 첫 번째가 형법 297조의 개정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이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개정된다면 소위 '꽃뱀론'으로 인한 가짜·진짜 피해자 논란이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 9개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209개 여성 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에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강간죄 구속 요건의 개정 촉구를 담은 의견서를 보내고, 폭행과 협박을 요구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은 물론, 개그나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닝썬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은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인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남성성의 상징인 것처럼 여기고, 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문화이자 힘이자 권력으로 목인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최근 기자들의 단독방에서도 불법 촬영 관련 기사가 뜰 때마다 영상을 요청하고 재유포, 성매매를 추천하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차별적 발언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안 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어떤 사고를 갖게 되는지는 교육에서 가장 먼저 결정됩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말과 사고와 실천이 쌓여서 이루어지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어려서부터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언론에서 미투를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인터뷰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A 상담소는 2003년부터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께서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대중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성폭력'의 의미를 바꾸자는 취지로 대회를 추진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자기의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참을 것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회를 열기 전 4개월간 워크숍을 진행하며 피해자 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하기 두렵다고 하시면 안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나선 피해자 분들은 다른 이들의 지지와 공감을 통해 다시 힘을 얻는 치

유의 장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해 신상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겪어야 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면서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상세하게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위원회 시정권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성폭력이란 소재 자체는 굉장히 선정적이기 때문에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언론은 선정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언론에서만큼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표현이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보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사에 권고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언론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자의 인격만큼 상담이 진행된다'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론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기사를 쓰는 사람들의 인격만큼 사람들에게 기사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죠. 선정적인 기사는 많은 사람이 읽을 수는 있겠지만, 영혼이 깃든 기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언론인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강조해주셨으면 해요.

Q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제도를 갖추기 위해 한 말씀해주신다면?

A 단독방에 누군가가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성희롱적인 농담을 했을 때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난 동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는 것을 봤는데 못 본 채 피했다면, 그것이 나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가만히 있기보다 행동하는 시민 정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과 언론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응답하라 1975

글 안형준(방송기자연합회 회장)



1974년 10월 24일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모습.
(사진 제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상의 기자가 부상을 입고, 그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수습하려던 송건호 편집국장은 끝내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분규로 쫓겨난 80여 명의 기자와 사원들은 현재 교회와 반정부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974년 10월 24일 ‘언론인을 불법 연행·감금하지 말라!’는 자유언론실천선언으로 촉발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사건의 한 장면이다. 1975년 동아일보와 동아방송(DBS) 기자와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113명은 해직자의 길에 들어섰다. 여섯 달 동안 복직 투쟁을 하던 해직자들은 파탄 난 가정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자도생을 선택한다. 하지만 해직자 중 상당수는 독재정권의 방해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일부는 민통련과 민언련을 만들어 민주화운동에 헌신한다.

Scene #2

12년 뒤인 1987년 1월 영등포교도소 면회실.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관이 가족을 만나 속내를 털어놓는다.

“아버지, 저 억울합니다. 저는 다리만 잡았어요. 죽인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순식간에 검은 양복의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친다. 중앙정보부와 남영동 대공분실 요원들이다. 죄수복을 입은 경찰관과 가족들이 반대 방향으로 급히 끌려나간다. 중앙정보부 요원은 교도관이 쓴 면회 대화 내용을 거칠게 뺏어 찢어버린다. 잠시 후 교도소 보안계장이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무자비하게 짓밟힌다. 이런 상황을 수감 중인 이부영 전 동아일보 기자가 파악한다. 그는 마침내 보안계장으로부터 찢어진 면회기록을 넘겨받는 데 성공한다. 박종철 열사 물고문 치사사건의 전모는 이렇게 메모로 정리돼, 당시 유명했던 주간지 사이에 숨겨져 세상 밖으로 나갔다.

영화 ‘1987’에서 주간지를 전달하는 역할은 여대생(김태리)이 맡았다. 동아투위 출신인 이부영 당시 민통련 사무처장은 1986년 5.3 인천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해직된 기자가 역사에 길이 남을 특종보도를 주도한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자유언론실천재단’의 두 번째 이사장에 선출됐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동아투위와 80년 해직 언론인 등이 공정언론 실현을 위해 2014년에 만든 단체다.

Scene #3

1979년 4월 30일 서울형사지법 대법정.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청년이 일어나며 목청을 높인다.

“우리는 이런 불공정한 재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을 나가겠습니다!”

Scene #1

새벽 3시 15분,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와~와’, ‘쿵! 쿵!’

각목을 든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고함을 치며 건물 계단으로 뛰어오른다. 해머로 공무국 벽을 부수고, 산소용접기로 철문을 해체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청년들이 휘두른 각목에 PD 한 명이 쓰러지고, 아나운서는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나간다. 1975년 3월 17일, 서울의 한 언론사에서 농성 중인 직원들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다.

다음 날 뉴욕타임스는 ‘동아일보 농성사원 축출’ 기사를 보도했다.

‘사측이 동원한 150명의 청년과 농성 사원들 간의 충돌로 적어도 5명 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아투위 4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 제공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법원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를 잡아 앉히자 방청석에서 구호가 터져 나 온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거부한 젊은이는 자유언론실천재단 초대 이사장인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이다. 그의 두 번째 구속은 1978년 10월 24일에 발행한 소위 ‘민권일지 사건’ 때문이었다.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일에 발행한 ‘동아투위 소식’은 제도권 언론이 외면한 125건의 ‘보도되지 않은 민주 인권사건 일지’가 담겨 있었다. 목숨을 걸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한 목사님과 민주인사들의 외침도 빼곡하게 실렸다. 현직 기자들이 외면한 팩트를 해직된 기자들이 전하러 애쓴 것이다.

민권일지 사건으로 안종필, 임채정, 김종철, 정연주 등 7명의 동아투위 위원들이 긴급조치 위반이란 명목으로 1년 반에서 2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칠순을 넘긴 후에도 공정언론을 위해 월급을 포기한 후배들 앞에 간간히 나타났다. 2012년 4월 한 언론사 파업집회, 낡은 버버리를 입은 그는 사자후를 터뜨린다.

“여러분은 언론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월급만 바라는 직장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은 언론자유를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른 후배들은 그 해 6개월 동안 파업을 이어갔다. 김종철 위원장은 자유 언론을 위한 고행길에서 세 번의 실형을 살았다. 취업도 할 수 없고 여권도 만들 수 없었으며, 경찰에 연행된 횡수는 기억할 수도 없다고 한다.

동아투위 선배들은 한국의 1970~80년대처럼 탄압받는 언론인이 곳곳

에 있음에 주목한다. 동아투위가 주축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은 독재정권에 맞서는 아시아 언론인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하다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살해되거나 가택 연금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직접 취재했다. 말레이시아 독재 권력이 식민지 유산을 그대로 답습해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해직 선배 언론인들의 이런 노력은 ‘현장르포 : 분투하는 아시아의 자유언론’이라는 단행본으로 결실을 보았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월말에 열리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에 동아투위 선배를 초청한다. 특종으로 보도한 후배들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

‘기자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세와 미·일 관계를 고려해 남북문제를 풀어야 한다.’

젊은 기자 중 상당수는 1975년 동아투위 사건을 책에서도 배우지 못했다. 그들에게 칠순을 넘긴 해직 언론인들이 과연 어떻게 비칠까?

동아투위 위원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셨고, 팔순을 넘겼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적지 않다. 언제까지 동아투위 선배들이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3월 17일이면 어김없이 신문사 앞에서 손뼉말을 든다. 폭력으로 쫓겨난 바로 그 날이다. 이 연례행사는 44년째 계속되고 있다.

내년이면 동아일보 창간 100년이다. 1919년 3·1운동의 열망을 모아 탄생한 신문이다. 동아일보는 1936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했고, 그 이후 오랫동안 ‘민족의 신문’이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동아일보가 화합의 물꼬를 트는 모습을 꿈꿔 본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 문제

글 김주연(김주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명예

얼마 전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하여 인기를 끌었던 유명 방송인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동성애자라는 기사들이 더 주목받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 보도들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우선 마약 복용 사실은 범죄사실로서 공적 사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범죄 보도가 정당하다고 해서 그 기사에 결다리로 그의 성적 지향을 언급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개인의 성적 지향은 개인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한 아무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부분으로, 대상자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보도는 절대 금지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의 없이 공개한 자

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비슷한 사안을 다룬 형사 판례도 있다. 특정인이 동성 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고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는 시선이 오히려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이는 명예훼손보다는 사생활 침해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의율하면 형사상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형사 책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사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의 성적 지향과 프라이버시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더 일찍이 인정한 미국에서는 학교 측이 부모에게 자녀의 동성애 사실을 허락 없이 통지한 것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 판결도 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 교내에 공개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가정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일 수 있으므로 학생이 자신의 입장에서 가족에게 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개인의 성적 지향을 함부로 '아웃팅'하는 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논의를 차치하고서, 무엇보다도 개인의 내밀하고 사적인 성적 지향 문제가 기자에 의해 작성되고 데스크의 검증을 거쳐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공개된 것, 또 첫 보도가 나가고 다른 많은 언론사가 이를 퍼다 나람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 그리고 이에 대해 다수의 사람이 그저 '보수적이고 모범적으로 보였던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놀라워했을 뿐인 사실이 조금은 안타깝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지극히 사적인 사실이 보도되면 사회가 함께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

황에서도 똑같이 불쾌해하고 거부감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아마도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니까.

올바른 존중과 화합의 길을 위해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다. 장애인 인권, 성 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등에 대한 보도준칙이 마련되었으며,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준칙도 있었다. 해당 준칙 제8장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하며,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하고,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권보도준칙의 내용으로 살펴봐도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동성애 사실은 마약 사건 보도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오히려 마약 사건 보도에 동성애 사실을 넣음으로써 성적 소수자가 잘못된 집단이라는 뉘앙스를 주었다. 첫 보도 당시에는 '동성연애 행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행각'이라는 단어는 주로 나쁜 현상에 붙이는 단어다.

이러한 논의를 한 김에 덧붙이자면, 성적 소수자 보도에서 많이 하는 잘못 중 하나가 '성적 지향'을 '성적 취향, 성적 기호'라고 쓰는 일이다. 성적 취향이나 성적 기호는 마치 동성애가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여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영미권에서도 한때는 Sexual Orientation(성적 지향)과 Sexual Preference(성적 취향)를 섞어 쓰다가, 지금은 Sexual Orientation으로 법률적 용어를 통일했다. 또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도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다. 커밍아웃은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힐 때 주로 쓰는 단어인데, 종종 언론보도에서 나쁜 사실, 이를테면 범죄 사실을 고백할 때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 이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이다. 이번 일이 부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 문제를 우리 사회가 다시금 짚고 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2019년 밀레니얼 트렌드 예측 ‘마이싸이더’



글 이재흔(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연구원)



최근 밀레니얼과 Z세대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인싸’다. 이는 인사이더(Insider)의 준말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모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귀를 움직일 수 있는 토끼 모자’, ‘텔레토비 세안 밴드’, ‘당근 볼펜’ 등 수많은 특이한 아이템들이 ‘이것만 있으면 인싸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으며, 밀레니얼과 Z세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를 스스로 SNS에 인증하며 하나의 놀이로 즐겼다. 지난해 ‘인싸’ 관련 인증 게시물만 22만 건에 달할 정도다. 그 밖에도 여행지에서 1980년대 복고풍 옷을 입거나, 인간 탐을 쌓는 독특한 포즈로 사진을 남기는 ‘인싸 챌린지’도 인기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밀레니얼과 Z세대의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그러나 이런 밀레니얼과 Z세대의 문화를 단순히 ‘인싸’ 트렌드라고 정의하기는 조심스럽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받기를 원하며 ‘혼족(혼자 활동하기를 즐기는 사람들)’ 트렌드를 이끌었던 이들이 갑자기 모임에서 중심이 되고자 한다는 것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밀레니얼과 Z세대가 어떤 점에서 ‘인싸’에 열광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인싸’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점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독특한 제품을 소비하고 인증 사진을 찍으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이를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이러한 특성을 ‘마이싸이더’로 재정의했다. 사회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아웃사이더 혹은 인사이더로 정의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개성을 드러내길 원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따르는 밀레니얼 세대의 모습을 담은 키워드다. 밀레니얼과 Z세대의 ‘마이싸이더’적 성향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진하게 드러난다.

마이싸이더적 특성은 이들이 즐기는 콘텐츠에서도 나타난다. 밀레니얼과 Z세대는 고품질의 콘텐츠가 아니어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재미와 매력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비한다. 최근 밀레니얼과 Z세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크리에이터는 초등학교 유튜버 ‘띠예’다. 스카치테이프로 붙인 마이크, 서툰 영상편집과 진행으로 고품질 콘텐츠라 하긴 어렵지만, 진정성과 순수함이 밀레니얼과 Z세대를 사로잡아 채널 개설 한 달 만에 구독자 31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재미만 있다면 광고도 콘텐츠처럼 즐긴다. 발로 그린 것 같은 그림으로 구성된 LG 세제 광고나 광고 온에어 3일 전에 광고 모델에게 부정적 이슈가 생기자 과감하게 콘티로 대체하여 시선을 끈 피자헛 광고가 그 예이다.

밀레니얼과 Z세대의 마이싸이더적 성향은 특히 그들의 가치관에서 두



(좌) 대표적인 인싸템인 토끼모자
(우) 인싸템으로 인기를 끌었던 텔레토비 세안밴드(출처 : 룩스)

드러진다. 이들은 결과만이 중요한 경쟁 사회에서 자라왔으나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주목한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에 그친 컬링팀에 주목하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예선 통과를 못해도 독일을 이긴 것에 열광하며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응원하는 모습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방점을 두는 마이사이더들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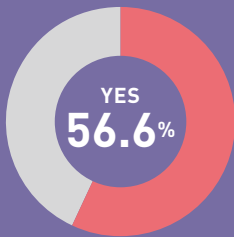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직업관도 바꿔 놓았다. 이들은 사회가 정한 안전한 길보다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내가 즐겁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다. 안정된 직장이 있음에도 본인의 꿈을 위해 퇴사

를 준비하는 '퇴준생(퇴사 준비생)'도 늘고 있으며, 이를 '퇴사 브이로그(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로 담아내며 퇴사를 인증하고 과정을 생생히 담아 공유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퇴사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도전과 용기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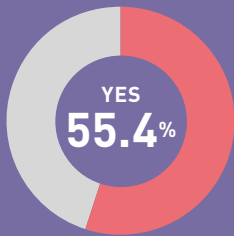
실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도 밀레니얼과 Z세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이나 주변의 의견보다 나의 만족을 우선으로 고려(56.6%)하고자 했으며, 사회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의 방식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식(55.4%)을 택하고자 했다.

밀레니얼과 Z세대의 행복의 기준은 더 이상 1등, 금메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기준이 아니며 노력, 소소한 성공,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기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이사이더 성향을 가진 밀레니얼과 Z세대는 획일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 삶을 꾸려가는 청년들이나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닌 가치관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공동체를 꾸리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고민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마이사이더적 성향을 가진 밀레니얼과 Z세대가 만들어갈 다양한 삶의 모습이 기대된다.

밀레니얼 세대의 변화된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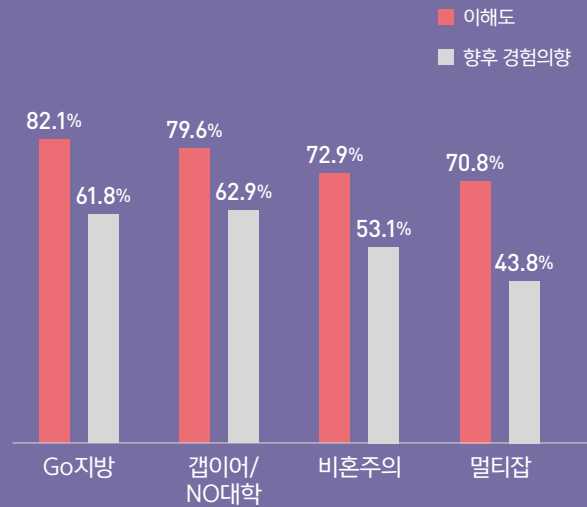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가족이나 주변의 의견보다 나의 만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사회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의 방식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택한다

Base : 전국 19~39세 남녀, n=800, Unit : 긍정응답률%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밀레니얼 세대 행복 가치관 탐구 보고서(2017. 12. 26.)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도 및 향후 의향



Base : 전국 19~39세 남녀, n=800, Unit : %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밀레니얼 세대 행복 가치관 탐구 보고서(2017. 12. 26.)

지혜인의 감동적인 사랑론

글 정효구(충북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사랑하는 까닭

한용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흥안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 주검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님의 침묵>(희동서관, 1926)에서

이 땅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시인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 수행하는 출가 승려이지만 근대시를 비롯하여 시조, 한시, 소설, 수필 등의 다양한 문학 양식을 통하여 자신이 닦은 정신세계를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선용(善用)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만해 한용운의 시는 시대적 요청과 한국적 교육 현실에 의하여 아주 경직되고 협소한 수준에서 읽히고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고승 대덕에게서나 볼 수 있는 특별히 깊고 높은 차원의 철학이자 종교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가르치는 사람들과 독자들 또한 그에 걸맞은 정신세계를 닦아 나아갈 때 이전과 다른 새 차원의 수준 높은 독서와 시 읽기의 기쁨 및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 시는 한용운의 사상적, 철학적, 종교적 탐구의 최종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의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용운

의 시집 <님의 침묵> 전체가 '사랑론'이자 '사랑학'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시집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시인 정신의 핵심인 '사랑'의 본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용운에게 사랑이란 세계의 실상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자 행위요, 인간 존재의 근원과 결합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자 정도(正道)이고, 인간사회를 정토이자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지고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용운이 생각한 사랑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랑'이란 말만큼 대중화되고 그 진폭이 엄청나게 크고 넓은 경우도 달리 없어서 사랑이란 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오해를 하거나 중층적인 현실상 앞에서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소아(小我)의 작고 이기적인 예고적 애착으로부터 세계 전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아끼고 보살피는 큰 나의 전일적, 영성적,



무아적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진폭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랑의 드높은 차원은 지해(知解)의 힘을 빌리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나 몸과 마음으로 진정하게 실천하고 실행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경지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알아보고 외경하며, 그런 사랑의 마음과 행위 앞에서 전율하고 감동하며, 그런 사랑인의 삶을 한없이 존경하고 사모합니다. 이것은 노력과 의도의 차원 이전에 내재하는 인간 존재의 참마음이 움직이는 일입니다.

위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낭독하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며 감정을 이입하여 덧붙여 보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한용운의 심오한 사랑론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위 시에서 환기되는 분위기와 사랑의 아우라가 저절로 전달돼 오기 때문입니다.

위 시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존재의 '홍안'은 물론 '백발'도 사랑하는 것이며, 한 인간의 '미소'뿐만 아니라 '눈물'도 사랑하는 일이고, 한 사람의 '건강'만이 아니라 '주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컨대 존재의 모든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을 참다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한 존재에 대한 절대적 긍정과 포용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한 몸임을 이해하고 체득할 때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전하자면 생이란 뱀비우스의 띠와 같은 것임을, 시비분별을 넘어선 중도(中道)적 일체의 세계임을 사무치게 터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사랑은 하기엔 힘이 들고 받는 일만 기쁘고 감동적이니 그 실현과 성취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혜인들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정진하라고 하니 그 말에 의지해서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터지다

글 황경신(작가)

네가 6년 동안 살았던 원룸은 작고 어두웠다. 창문도 없어서 좁은 베란다에서만 밖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 그레봤자 보이는 건 아스팔트와 못생긴 건물들이었다. 그래도 여섯 번의 봄은 찬란했다.

베란다에 기대듯 자란 벚나무 두 그루 때문이었다. 벚꽃이 망울을 터뜨린 봄밤에, 너는 베란다에 놓인 꼬마 의자에 홀로 앉아 피고 지는 날들의 명랑함과 허무함을 헤아렸다.

그 6년 동안, 네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조금도 기쁘지 않은 사랑이 들이닥쳤다가 갑자기 꿈무늬가 빠져라 달아나는 바람에, 살맛을 잃고 자리에 누워, 누군가 살해당하고 누군가 도망다니는 범죄 드라마만 즐기치게 보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인 후배가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너를 또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어 상담을 받게 했지만, 처방받은 약 대신 맥주를 훌쩍이며 캄캄한 어둠 속에 버려진 인형처럼 앉아 있던 밤들도 있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별이 지나고 어린 연인을 만났지만, 살을 파먹고 뼈를 부수는 사랑을 이미 알아버린 너는 서둘러 그를 내쳤다. 그 사이에 너의 가까운 친구는 알코올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실려 갔고, 밤이면 네게 전화를 걸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때부터 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떠한 반전도 없는, 무미하고 건조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사하던 날, 너의 걸음에는 머뭇거림이 없었다. 텅 빈 방의 문을 단호하게 닫고, 짐이 가득 쌓인 트럭에 올랐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너는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 두 그루의 벚나무가 있었다. 무상으로 누렸던 사치, 낡고 누추한 일상과 동

떨어진 존재, 그래서 아름답고 그래서 서글퍼던 봄밤들이었다. 꽃이 피려면 아직 두어 달쯤 남았구나, 너는 중얼거리며 보일 듯 말 듯 미소 지었다.

새로 살게 된 집은 지난번 집보다 크고 밝았고, 베란다 밖에 나무들도 있었으나, 겨울바람을 맞고 서 있는 앙상한 가지들은 영 시원치 않아 보였다. 그래서 유난히 늦장을 부리던 봄이 마치 못해 엉금엉금 기어 나온 그 날, 팝콘처럼 희고 작은 알갱이들이 나뭇가지 언저리에서 나풀거리고 있는 창밖의 풍경을 너는 믿을 수 없었다. 꽃은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것이다, 봉오리는 가만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이 무너지듯 폭포가 쏟아지듯 와르르 솟구치는 것이다, 너는 다짐하듯 스스로 말했다.

너는 사전에서 터질 폭(爆)을 찾아,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불화(火)와 사나울 폭(暴)이 만나서 만들어진 말. 갇혀 있던 불이



터진 자리에는 흉터가 남겠지만,
 어차피 세월의 파도가 밀어닥치겠지.
 위험한 것은 차마 터지지 못한
 것들인지도 모른다.
 너는 고개를 가웃거리다 생각을 접었다.
 그러나 그 봄날, 너의 창문은
 내내 열려 있었다.

다. 꽃망울이 터지고 가슴이
 터진다. 터짐을 헤아리던 너
 는 아주 오래된 노래 하나가
 떠올라서, 피식 웃어버렸다. '터
 질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이 내
 곁을 떠나면.' 당신이 떠나고 터지지
 못했던 마음이어서 속이 끓은 걸까. 어디
 로도 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발이 묶인 걸까.

네가 지난날들을 헤집고 헝클어뜨리는 사이, 터져 나
 온 꽃망울로 눈부시던 날은 지나가고, 나무 아래 꽃의 무덤
 이 생겼다. 봄비가 무덤을 쓸고 지나가면 여름의 소나기가 나
 못있을 적실 것이다. 가을의 스산한 찬비에 떨어진 나뭇잎들
 이 몸을 뒤척일 즈음, 볼품없는 가지는 눈을 기다리겠지. 그
 령게 계절이 오고 또 가는 동안, 한껏 숨을 참으며 불씨를 키
 우고 있을 꽃들을 너는 상상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를 바라는, 태양이 작열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삶은 어떤 걸까. 사무치
 고 벅차올라 마침내 터지고 마는 그 순간의 화려한 절망 혹
 은 덧없는 환희는 어떤 맛일까. 터진 자리에는 흉터가 남겠
 지만, 어차피 세월의 파도가 밀어닥치겠지. 위험한 것은 차마
 터지지 못한 것들인지도 모른다. 너는 고개를 가웃거리다 생
 각을 접었다. 그러나 그 봄날, 너의 창문은 내내 열려 있었다.
 갇혀 있는 것들을 모조리 풀려나게 하려는 듯. 여태 품고 있
 던 것들을 비로소 놓아버리려는 듯.

사나운 기세로 뛰쳐나오는 것일까. 여리고
 가냘픈 꽃망울이 북풍 부는 겨우내 불을 품고 있
 다가, 세계의 온도와 습도를 가늠하여 팡, 터져 나오는
 것일까.

너는 너의 마음속을 뒤져, 네 속에 숨어 있을 법한 불같은
 것을 찾고 싶었다. 사소한 계기를 핑계 삼아 솟구쳐 나올, 그
 래서 한순간 세상을 밝힐 환한 무엇을 너도 갖고 있었어야
 했다. 삶이 너를 쥐고 뒤흔드는 동안 터지지 않기 위해 인간
 힘을 써왔다는 것을, 불씨가 보일 때마다 모질게 짓밟아왔다는
 것을 너는 뒤늦게 깨달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으며.

너는 세상의 터지는 것들을 되뇌었다. 막혔던 것이 무너지
 고 뚫어지고 찢어지는 것들. 홍시가 터지고 제방이 터진다.
 입술이 터지고 솔기가 터진다. 코피가 터지고 폭죽이 터진다.
 분통이 터지고 울음이 터진다. 운수가 터지고 일복이 터진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증인〉

글 윤성은(영화평론가)



신념과 현실 사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루도 빠짐없이 비리와 범죄로 가득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종종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특히 사회 지도계층이나 공인처럼 부와 명예, 대중들의 신뢰와 사랑까지 다 가진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각들이 드러날 때면 새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나름대로 진정한 정의에 대해 고민하며 산다는 건 아무래도 순진한 짓인 것 같다. 저들은 윤리적 가치 판단 없이 사리사욕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까,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것일까. 평범한 서민들을 호구로 만들어 놓는 요지경 세상이 참 야속하다.

영화 <증인>(감독 이한)의 '순호'(정우성)는 40대가 넘어서야 영악하게 살 것을 선택하는 인물이다. 오랫동안 민변에서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활동했지만, 아버지의 빛과 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그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 과거와 반대편에서 세상을 응시한다. 영화 초반부, 순호가 인체에 해로운 C&A 생리대 관련 재판을 놓고 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장면은 영화의 주제를 잘 내포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안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즉각적으로 다른 색깔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에 적응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성공으로 가는 다음 단계에서 로펌 상사는 순호에게 의뢰인들이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적당히 '때'를 묻히라고 요구한다.

이미 민변에서 활동했던 시절의 사진까지 지우는 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순호는 큰 갈등 없이 상사에게 묻는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남들이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방식에 따르기 위해 그도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는 순간이다.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다

순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망가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재고하게 되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지우'(김향기)와의 만남을 통해서다. 지우는 순호가 담당하고 있는 김은택 노인 사망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검찰 측에 그 집 가정부인 '미란'(염혜란)이 김은택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왔다. 그러나 순호는 미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우가 장애를 가졌다는 점을 역이용하고자 한다. 그는 끈질기게 지우에게 접근해 그녀를 증인석에 앉히려 하면서도 지우가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자폐증에 대한 그의 편견은 결국 재판 중 '정신병'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만다.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한 그의 직업적 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상 살인자에게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할 뻔) 한 윤리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더 강조하는 순호의 잘못은 그가 지우에 대해 무지(無知)했다는 것과 그녀를 사람들 앞에서 정신병자로 매도하고 모욕했다는 것이다.

사실 무관심이나 정신적 상해만큼 나와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에 자주 저지르는 잘못도 없다. 누구나 인권과 평등을 운운하는 시대지만, 오직 불온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우가 좋아하는 것들로 마음을 사려했던 순호만큼도 소외계층이나 소수자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순호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잠시 체험했던 것처럼 감각적으로 극도로 예민하게 태어난 지우의 고충을 제대로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위다.



영화가 건네는 메시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완득이>(2011)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우아한 거짓말>(2014)에서는 학교 폭력과 자살 문제를 다루었던 이한 감독은 <증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사회적, 정신적으로 소외된 10대의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자극적인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는 그의 작품에는 항상 인간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묻어난다. 과거에 나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돌이키고자 하면 다시 선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감독의 믿음과 배려가 영화 속 캐릭터를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달한다. 초심을 잃어 버렸던 순호가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재판을 뒤집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들이 그의 영화 안에 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나도 저런 용기를 내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만드는 장면들이다.

지우는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직업을 가진 순호에게 묻는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증인>이 관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것은 어쩌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사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해도,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안다 해도 거기에 당위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사회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이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어요.”*



위원회 뉴스

2019년도 해외언론평해구제기구 교류협력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방문

이석형 위원장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의 미디어법률자원센터(Media Law Resource Center)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워싱턴 D.C.의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를 방문해 한국의 언론 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미국의 언론과 피해구제제도 현황을 조사했다.

미국 내 언론관계법을 연구하는 미디어법률자원센터에서는 Jeffrey P. Hermes 부센터장과 미국의 언론 관련 분쟁의 최근 추세 및 주요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David McCraw 부사장 및 Michael Slackman 국제 편집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보도의 사실관계 확인과 언론사의 독자 고충 처리절차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를



워싱턴 D.C.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방문

를 소개했다. 1878년 설립되어 40만 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된 미국변호사협회에서는 조정·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분야의 현안과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교육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에는 해당 협회의 Linda W. Seely 분쟁해결분과장 및 Harrie Samaras 분과위원장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교류협력 방문에서 이석형 위원장은 “우리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허위조작정보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언론 분야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위원회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MOU 체결



사진 제공 : 대한변호사협회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4월 1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언론보도 피해조정 및 중재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와 대한변협은 구체적인 자문변호사단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그 외 언론·교류확대, 강사지원, 시설사용 협조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5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 출범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4월 12일 제5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12명으로 구성된 제5기 SNS 기자단(단장 박재현)은 10월까지 위원회 공감블로그(pacblog.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pacnews)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할 예정이다.

위원 동정

정은령 위원, <팩트체크 저널리즘> 발간

정은령 위원(서울제4중재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은 3월 5일 전·현직 기자 및 연구자들과 공동 집필한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발간했다. 이 책은 팩트체크의 기원과 개념, 체크리스트, 다양한 사례 연구 등이 담겨 있다.

주정민 위원, '유료방송 재편기, 동반성장의 길 모색' 세미나 개최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4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재편기, 합리적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한 동반성장의 길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업자 간 중속성을 탈피한 공정한 거래 환경과 달라질 시장 환경에서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조건 등 시장구조 재편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안차수 위원,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참석

안차수 위원(경남중재부,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인수합병으로 방송의 지역성, 공공성의 훼손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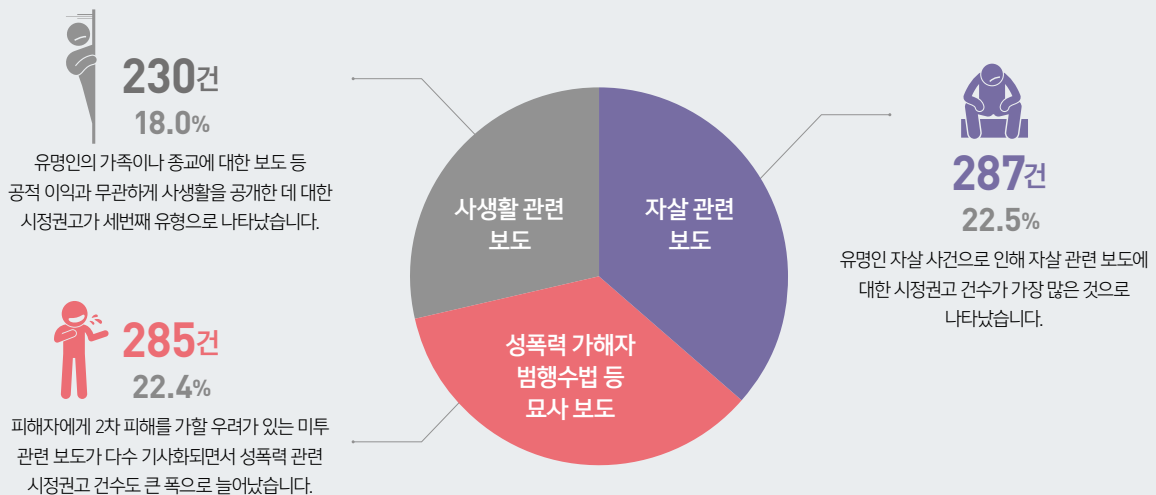
문윤택 위원, '제주국제대 교수협의회 회장' 선출

문윤택 위원(제주중재부, 제주국제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은 3월 26일 출범한 제주국제대 교수협의회회 회장으로서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문윤택 위원은 "모두가 화합해 학생 중심의 강력한 대학을 만들어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2018년도 시정권고, 가장 많은 법익침해 유형 TOP3

시정권고 제도는 언론보도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는 권고적 조치로, 위원회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를 폭넓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어떤 유형의 법익침해 보도가 가장 많았을까요? 2018년 1,275건 시정권고 건수 중 시정권고 결정이 많았던 대표적 침해 유형은 자살 관련 보도,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보도, 사생활 침해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유형의 법익 침해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보도 윤리'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했으며, 2019년에는 국적, 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법익침해보도의 예방과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동영상 공모전

참가자격

- 제한 없음
- 개인 혹은 팀으로 응모 가능하며, 1인/팀당 복수 응모 가능 (단, 수상은 1명/팀당 1작품으로 한정)

공모주제

언론중재위원회 동영상 공모전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분쟁해결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개
-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 사회적 피해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 소수자, 약자, 성별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위원회의 방향
-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 사례

공모형식

- 영상길이 : 20초 이상 60초 이하의 동영상
- 파일형태 : mpeg, mp4, avi 등
- 해상도 : 1280×720(HD화질) 이상

접수기간 2019년 5월 1일(수) ~ 6월 30일(일)

제출방법

- 1단계 : 작품을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 ※ 게시물 제목 :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 응모작
 - ※ 입상작으로 선정 시 원본 파일 위원회에 제출 필수
- 2단계 : 공모전 홈페이지(contest.pac.or.kr)에서 접수 및 확인
 - ※ 지원 접수 시 게시물 URL 기재

시상내역

구분	개별 상금	수상인원(명/팀)
대상	300만원	1(명/팀)
금상	100만원	2(명/팀)
은상	50만원	2(명/팀)
장려상	위원회 기념품	0명

결과발표

7월 셋째주(예정)

1차 자체심사 및 2차 네티즌 심사를 종합하여 순위 선정

문의사항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해 주십시오.

- ※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 공모전 담당자 02-397-3082, pac3083@pac.kr
- ※ 본 포스터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